

지역 매아리

부안군, 태풍 상황판단회의 개최

부안군은 5일 제13호 중형태풍 '링링' 북상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조치 방안을 위한 태풍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한근호 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제13호 태풍 '링링'은 6일 오후 3시 서귀포를 경유하여 7일 오후 3시 사산 서남서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최대풍속 40m/s 중형태풍으로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6일부터 태풍해제시까지 비상 2단계 상황으로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상황판단회의의 재난대비 영상회의 및 2개소 협업부서별 대처사항 및 금후계획을 보고 받고, 특히 태풍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선박인양 및 결박, 간판날림, 외출자제 등 강풍에 대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근호 부군수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마음의 부담을 앓고 상경하지 않도록 태풍의 진로를 주시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인명피해, 농작물, 취약시설 등 각종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주요 도시서 농특산물 홍보·판매 직거래 장터 운영

정읍시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정읍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한다. 도·농간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자매 결연 도시인 강서구와 도봉구를 비롯해 세종시, 전주시 등의 장터에 정읍시 2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단품인 제품을 비롯해 귀리와 북분지주 등 2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함으로써 정읍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유통경로를 확장해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읍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도농 상생과 추석맞이 물가 안정대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정읍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며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진섭 정읍시장,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수여

유진섭 시장이 5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등재인증서를 전달받았다.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무성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해당 지자체장, 문화재청장, 서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국내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기념식을 통해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14개 광역·기초지자체장과 9개 서원 대표자들에게

인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유진섭 시장은 "무성서원이 정읍과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서원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원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기꾸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서원 보존·관리와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 서원 주변의 경관 저해 시설을 옮기고 돌레길과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서원의 진정성과 역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수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에서 재밌는 레저 스포츠 시작해보자

고창군, 아산면 할매바위서 클라이밍 무료 체험교실 운영

"아찔한 바위 위에서 맞는 선운산 바람의 상쾌함이 매력적" 자연암벽장 중 전국 최고로 꼽히는 아산면 할매바위에서 무료 클라이밍 체험교실이 열린다. 5일 고창군은 아산면 할매바위 클라이밍 무료 체험교실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아산면 할매바위 클라이밍 무료 체험교실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운영되는 무료체험 교실에는 모든 장비가 지원되며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인 만큼 물과 간식도 지급된다. 또 군청-할매바위 간 셔틀차량 운행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는 매일 오후 1시30분 고창군청 광장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면 된다. 높이가 60m, 폭 50m에 달하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는 수직벽과 오버행(수직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바위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돌출부나 틈새(돌출부 등)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잘 발달된 포켓홀드(흠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클라이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등반거리도 짧은 편으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난이도 역시 초·중급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해 자기 수준에 맞는 루트를 등반할 수 있다. 고창군은 이번 무료 체험 교실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레저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암벽등반의 매력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할매바위와 더불어 내년 완공예정인 인공암벽장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교실,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의 클라이밍 동호회와 레포츠 체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클라이밍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 스포츠마케팅 행보를 눈여겨 볼만하다. 군은 연초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신설된 스포츠마케팅팀과 민관추진위원회가 협력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레포츠 활성화 추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체험교실 신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거나 팩스(063-560-8959)로 보내면 된다. 접수 기한은 11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은 고창군 스포츠마케팅팀(063-560-8929)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건강한 출산 위한 임신부 프로그램 '인기'

정읍시보건소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월부터 11월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건강교실과 공예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보건교실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 등의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 임신부 공예교실에서는 찜구 베개와 애벌레 인형, 돼지 오목이 인형 만들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임신부들 간의 정서 교감 및 교류를 통한 임신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주 화요일에는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으로 모유 수유 시 발생하는

문제 대처법 등 모유 수유로 인한 개인별 문제 진단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넷째 주에는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해 신생아 건강과 질병, 수면 교육, 아기 목욕 방법, 신생아 마사지, 이유식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토피어리와 허바플러리움을 만들며 몸도 맘도 즐거워지고 힐링할 수 있는 원예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성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주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금남 사장은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추석 맞이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 실시

고창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로부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와 함께 11개소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까지 찾아가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통한 현장 대응 및 연계방안 현장상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5가정에 가정폭력 전문상담사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1:1 상담 및 경제·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추석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70.6% 증가해 가정폭력예방 및 발생사건 엄정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112상황실에서는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가 예상되는 신고일 경우 코드 제로를 우선 부여하고 지·파출소에서는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신속 정확하게 반드시 현장 출동 및 현장 확인, 신고접수 시 긴급성 판단, 피해자의 안전상태 확인하고, 현장출동하여 폭력행위 제지 및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응급조치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및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현장 상담회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경찰관과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상담사와 대화를 통하여 사례별 대응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하면서 현장조치 적정성 및 사후관리 등 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적정적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시간이 가졌다. 최근 1년 동안 23회 가정폭력 112신고를 한 5가정을 가정폭력 전문상담사와 방문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므로 가정폭력 원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경제·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주의 당부

부안군은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계약이 해제 또는 무

효·취소가 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gift set option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 such as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6세 | 500ml 향복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he bottom right corner includes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 and phone number 'TEL : 063-584-9900'.